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안도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명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샤덴프로이데 연구를 성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1) 심리학 석사 및 박사 12명에게 각 문항의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고,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99명을 대상으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싫어함, 부당함, 동일시, 보상, 공격, 경쟁, 정의)이 포괄적으로 제시된 문항과 시나리오 및 STS를 측정 후 분석하여 STS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STS는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샤덴프로이데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일반인 330명을 대상으로 STS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샤덴프로이데와 유사한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되지만, 샤덴프로이데와 구별되는 정서인 시기심, 공감적 행복(공감 및 사랑), 연민을 측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우울,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샤덴프로이데는 외동이거나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일 때보다 형제자매가 1~2명일 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의 상태일 때 다른 직업적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STS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나타났다. 연령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샤덴프로이데는 시기심과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공감적 행복과 연민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적절하게 변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샤덴프로이데는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관련되며 삶의 만족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사회비교, 시기심, 공감

[†] 교신저자: 조명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BK연구교수,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법학관 구관 402호, E-mail: mhc1978@korea.ac.kr



Copyright ©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올림픽 경기를 떠올려보자. 배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멋진 백어택 공격을 했지만 아웃 판정을 받았을 때, 양궁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가 실수하여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 상대편의 페널티킥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때로 약간의 안쓰러움을 느끼면서도 환호한다. 일상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많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버스전용차선 혹은 통행이 금지된 갓길로 빠르게 달려가던 차가 경찰차에 걸려 오히려 멈춰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왠지 ‘쌘통이다’ 혹은 ‘고소하다’ 라고 느낀다. 이렇듯 남의 불운이나 고통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한다. 이는 손상(damage)을 의미하는 ‘샤덴(schaden)’과 기쁨(joy)을 의미하는 ‘프로이데(freude)’의 합성어로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말에는 미운 사람이 당한 불행한 일을 고소하게 여긴다는 의미의 ‘잘코사니’가 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banbanam’, 프랑스에서는 ‘joie maligne’, 러시아에서는 ‘zloradstove’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幸災樂禍’, 일본에서는 ‘他人の不幸で今日も飯がうまい’라고 표현한다(Nakano, 2018/2018; T. W. Smith, 2018/2020).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epichairekakia(에피는 ‘-에 대한’, 카이로는 ‘큰 기쁨’, 카키아는 ‘치욕’을 의미함)’(T. W. Smith, 2018/2020, p. 8)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니,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꽤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샤덴프로이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도덕적 측면 및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그 표현을 제한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Cecconi et al., 2020; Hoffmann et al.,

2017; Powell & Smith, 2013).

연구가 진행되면서 샤덴프로이데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유사한 맥락에서 경험되는 감정과 차이점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축적되고 있다. van Dijk와 Ouwerkerk(2014)는 주체가 직접적으로 야기한 타인의 불행에 대한 감정은 가학(sadism)에 더 가까우므로, 샤덴프로이데의 정의를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즐거움으로 제한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샤덴프로이데가 직접적인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물리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과도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Boecker 등(2015)도 샤덴프로이데와 기쁨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축구경기의 페널티킥 상황에서 상대편의 실축과 우리편의 골인을 보여주고 근전도 검사를 통해 얼굴 표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상황에서 동일한 얼굴 근육의 활성화가 나타났으나, 참여자들 스스로는 승리의 기쁨 상황에서 더 큰 유쾌함을 느꼈다고 보고했음에도 샤덴프로이데 상황에서 더 강한 근전도 반응을 나타내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시기심(envy)과 샤덴프로이데를 비교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감정은 대체로 사회적 상황비교 상황(Feather, 1989, 1991)에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인 ‘잘난척 하더니 쌘통이다’라는 말처럼, 타인의 불행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샤덴프로이데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타인의 행복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시기심이다. 시기심은 타인의 우월한 행운에 대한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 반응(부러움, 수치심, 질투, 상대적 박탈감, 분함)이며, 자신이 소망

하던 것을 소유한 상대에 대한 열등감이나 적대감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미한다(Heider, 1958; Parrott & Smith, 1993; R. H. Smith, 2013/2015). 부러운 이웃의 불행에 대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시기심 속에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같다고 Socrates가 언급한 것처럼(Plato, trans. 2020), 시기심이 샤덴프로이데로 이어지거나 혹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R. H. Smith, et al., 2009; R. H. Smith et al., 1996) 두 정서 간 유사한 속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겪는 결과가 그럴만한(deserved) 상황에서 샤덴프로이데는 시기심보다는 분개함에 의해 예측되었다(Feather & Sherman, 2002). 또한 fMRI를 활용한 Takahashi 등(2009)의 연구에서 시기심을 느낄 때는 긍정적 자기개념과 외부 정보의 충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통증과 관련된 배측전대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이,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할 때는 쾌감과 관련된 보상 중추인 복측 선조체(ventral striatum)가 활성화되어 두 정서에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인 샤덴프로이데는 최근 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다. 아마도 이는 발전하는 네트워크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다양화 등으로 타인의 보여지는 삶을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Vogel et al., 2014). 이에 더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K. White & Lehman, 2005)와 지나친 입시경쟁 및 취업전쟁의 영향으로 타인과 더 많이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샤덴프로이데가 낮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높은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적

특성, 정신병리적 특성, 반사회적 행동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공격적 행동들과 연관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Demeter et al., 2021; Greenier, 2018; James et al., 2014; van Dijk et al., 2011), 샤덴프로이데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대체로 샤덴프로이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짧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측정해왔으나(Brigham et al., 1997; James et al., 2014; Leach et al., 2003; van Dijk et al., 2005), 몇 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측정된 샤덴프로이데가 상황 특정적이거나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의 샤덴프로이데를 예측하지 못하고(Greenier, 2018), 경제적으로 효율이 낮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전반적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질문들로 구성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Dalakas와 Melancon(2012)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에 대한 동일시 및 경쟁팀에 대한 샤덴프로이데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가 있다. 이 척도 중 4개 문항이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는데, 스포츠 경기 상황과만 관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샤덴프로이데 특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샤덴프로이데와 유사한 특성으로, 성취를 보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흠을 보는 의미를 담고 있는 Tall Poppy 신드롬을 측정하기 위한 17문항의 ‘Tall Poppy 질문지’(Toll Poppy Scale, Feather, 1989)도 있으나, 기존의 해외 연구들에서 샤덴프로이데를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질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 Lee, 2014)가 개발되어 있다. Toll Poppy 질문지와 STS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개념의 차이 및 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적인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Lee(2014)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선택하여 이 척도가 성인에게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

앞서 언급하였듯이 샤덴프로이데에 대해 증가하는 관심과 연구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성인에게 전반적인 샤덴프로이데를 적절히 측정하는 질문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전문가 평정을 통해 STS가 샤덴프로이데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할 수 있는 짧은 상황들과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과 정도를 파악하고, 청소년용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함께 측정하여 성인들의 샤덴프로이데 경험이 청소년용 척도로도 타당하게 측정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STS의 문항들이 샤덴프로이데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 12명에게 샤덴프로이데의 개념 및 대표적 예시와 STS를 제시하였다. 전문가는 임상 및 상담 심리학 분야의 박사 3명과 석사 및 박사 수료자 2명, 사

회 및 성격 심리학 분야 박사 4명,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 박사 3명으로 구성되었다. Lynn(1986)이 내용타당도의 적절성을 측정하고자 제안한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기 위해 STS의 각 문항이 얼마나 샤덴프로이데와 관련되는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Polit, Beck 및 Owen(2007)은 문항별 CVI(I-CVI)와 전체 CVI(S-CVI)에 대해 각각 .78과 .90이상을 적합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들을 리뷰하였다 (Brigham et al., 1997; Cecconi et al., 2020; Dalakas & Melancon, 2012; James et al., 2014; Leach et al., 2003; Lee, 2014; Nakano, 2018/2018; Oh & Kim, 2020; R. H. Smith, 2013/2015; T. W. Smith, 2018/2020; van Dijk et al., 2005). Cecconi(2017, as cited in Cecconi et al., 2020)는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관한 6명의 면접자료와 100명의 질문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샤덴프로이데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싫어함(aversion)’, ‘부당함(injustice)’, ‘동일시(identification)’, ‘보상(compensation)’의 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싫어함’은 A가 싫어하는 사람 B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A가 느끼는 것이고, ‘부당함’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의 불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다. ‘동일시’는 예를 들어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과 라이벌팀이 경쟁하였을 때 상대팀의 불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며, ‘보상’은 A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B도 같은 종류의 불운을 겪게 되어 A가 B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한편, Wang 등(2019)도 그간 축적된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리뷰하여 샤덴프로이데가

서로 관련되지만, 원인과 발달적 기원이 구분되는 3가지 하위 유형이 있는 삼원 동기모델(tripartite motivational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는 ‘공격(aggression)’, ‘경쟁(rivalry)’, ‘정의(justice)’로 ‘공격’은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초기 의식에서 비롯되는데, ‘그들(they)’이 겪는 불운이 ‘우리(us)’에게는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쟁’은 사회적 비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며 불운을 겪은 사람들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status)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샤덴프로이데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후기 아동기에 발달하는 공정성 규범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통받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 샤덴프로이데도 경쟁 샤덴프로이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교와 관련되지만, 정의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타인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공격 및 경쟁 샤덴프로이데와 차이가 있다(Wang et al., 2019). 이와 같이 샤덴프로이데를 느낄 수 있는 상황과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샤덴프로이데 경험을 나타내는 짧은 상황들에 Cecconi 등(2020)이 주장한 4가지 상황과 Wang 등(2019)이 주장한 3가지 하위 유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시나리오로 구성된 경험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Lee(2014)가 국내 청소년들을 조사하여 생성한 시나리

오 중 하나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에는 샤덴프로이데처럼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세 가지 정서를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정서들은 타인의 행운에 대한 불쾌감인 시기심과 타인의 불행에 대한 불쾌감인 연민, 그리고 타인의 행운에 대한 유쾌함인 공감적 행복이다(Coppens, 2008, 그림 1).

방 법

연구참여자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모집한 성인들로 전체 102명이었다. 모집 문건 및 연구 설명문을 보고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만 포함하였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 참여 점수를 제공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 중 남성이 20명(20%), 여성이 79명(80%)이었으며, 연령범위는 만 20~51세였다(전체 평균연령: 25.87세, $SD = 8.08$). 남성의 평균 연령은 22.7세($SD = 1.81$)였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26.7세($SD = 8.83$)였다.

	타인의 행운(other's fortune)	타인의 불행(other's misfortune)
유쾌(pleasure)	공감적 행복(empathic happiness)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불쾌(displeasure)	시기심(envy)	연민(sympathy)

그림 1. 타인의 행운과 불행에 대한 반응(Coppens, 2008)

측정도구

샤덴프로이데

참여자들의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사용하였다. 이는 Lee(201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험 탐색을 통해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선별하여 제작한 1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좋다’,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소하다고 느낄 것이다’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Lee의 연구에서 단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두 번째로 샤덴프로이데 문헌들을 리뷰하여 성인들이 샤덴프로이데를 느낄 수 있는 일상 생활 경험을 20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의 형태로 구성한 샤덴프로이데 경험 질문지를 (<https://forms.gle/kBah47yD8zSRpQKq9>) 사용하였다. 되도록 Cecconi 등(2020)과 Wang 등(2019)이 제안한 하위 유형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문항 구성의 목적이 하위 유형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샤덴프로이데의 내용이 잘 반영되는지였기 때문에 각 문항에는 하위 유형의 내용이 혼합되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옛 상사가 나의 새 직장에 지원서를 냈는데, 그의 서류 탈락 소식을 내가 이메일로 전하게 되었다면 기쁠 것이다’는 ‘싫어함’ 유형을, ‘억울한 일의 피해자인 척하던 유명인이 알고 봤더니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드러나서 현재 관련 방송이나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본다면 고소한 느낌이 들 것이다’는 ‘부당’ 혹은 ‘정의’ 유형을 반영하였다. ‘동일시’나 ‘공격’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Oh와 Kim(2020)이 Dalakas와 Melancon(2012)의 척도 중 일부를 번역한 문항인 ‘스포츠 게임에서 평소 내가 응원하는 팀의 라이벌팀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기쁠 것이다’ 등을 사용하였고, ‘경쟁’ 문항으로는 ‘내가 꿈꾸던 회사에 취직한 친구가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고소한 느낌이 들 것이다’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상’ 문항에는 ‘전 애인의 변덕스러운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즐거울 것이다’ 등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났다.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는 마지막 측정치로 샤덴프로이데 경험에 속하거나 혹은 관련된 정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Lee(2014)가 사용한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한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5가지 질문에 답한 뒤, 두 번째 이야기를 읽고 다시 5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어릴때부터 나를 괴롭히고 비웃었던 엄마 친구의 자녀인 동성친구 A가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하여 유명해진 상황이고, 두 번째 부분은 큰 인기를 얻은 A가 결국 문제를 일으켜 그룹에서 탈퇴당하고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주며 결국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잊혀진 상황이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샘이 난다’, ‘기분이 나쁘다’,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A에게 생긴 일 때문에 기분이 좋다’, ‘A에게 생긴 일에 만

죽할 수 없다'의 5가지 질문을 하여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주로 탐색하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A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썩통이라고 생각한다', '유쾌하게 느껴진다', '만족스럽다', '안타깝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5가지의 질문을 하여 주로 샤넨프로이데를 탐색하였다. 질문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

IBM SPSS Statistics 24를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각 척도들의 기술 통계를 산출하고,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척도 및 시나리오 문항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가 평정치의 비율을 통해 Lynn(1986)이 제시한 CVI 값을 산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전문가 평정을 통한 내용타당도 분석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TS)가 샤넨프로이데 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CVI를 통해 검증하고자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STS 각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점, 관련없음; 2점, 거의 관련없음(수정을 하지 않는 한 관련된다고 하기 어려움); 3점, 관련됨; 4점, 매우 관련됨). CVI는 각 문항에 대해 3점 또는 4점에 답한 전문가의 비율이며, 문항별 값인 I-CVI와 전체 측정도구의 값인 S-CVI로 산출된다(Lynn, 1986). Polit 등(2007)은 적절한 I-CVI와 S-CVI의 기준으로 .78과 .90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데, STS에

대한 전문가 평정결과 I-CVI 값이 .83~1.00, S-CVI 값이 .93으로 산출되어 기준을 충족하였다.

기술통계치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TS)와 샤넨프로이데 경험 질문지 및 시나리오 질문지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 표본 수가 20에 불과하며, 여성과 표본 차이가 커 성별 차이 분석은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다.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STS, 경험 질문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시나리오 질문지 중 어릴 적 친구 A가 성공한 부분에서 열등감을 반영한 문항인 "내가 A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남성 $M = 2.30$, $SD = 1.30$, 여성 $M = 3.24$, $SD = 1.27$), 공감적 행복을 반영한 문항인 "A에게 생긴 일 때문에 기분이 좋다"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남성 $M = 4.65$, $SD = 0.59$, 여성 $M = 4.14$, $SD = 1.11$),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공감적 행복 반영 문항에서는 남녀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실제 성차를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적은 표본 수 및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등 표본 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려 이러한 정서에서 실제 성차가 관찰되는지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척도 간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는 STS와 샤덴프로이데 경험 질문지 및 시나리오 질문지 문항들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1). 각 척도들이 연령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시나리오 질문지의 1-3)문항과 1-4)문항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선 STS는 스포츠 경기에서 라이벌 팀이 실수했을 때 즐거운 느낌, 유명인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을 봤을 때의 고소한 느낌, 싫거나 부러운 사람의 불운에 대한 즐거운 느낌 등을 담은 구체적 경험 질문

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r(99) = .54, p < .001$. STS와 시나리오 질문지 문항들의 상관 분석에서도 STS는 샤덴프로이데를 반영하는 2-1), 2-2), 2-3) 및 2-5) 문항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특히 ‘유쾌하게 느껴진다’거나 ‘행복하게 만든다’는 등 유쾌(pleasure)한 감정과 상관 정도가 .57과 .66 등으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STS가 샤덴프로이데를 타당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시나리오 질문지에서 시기심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인 1-1) 샘이 난다와 STS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시기심과 샤덴프로이데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표 1.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와 경험 및 시나리오 질문지의 상관분석 결과 (N = 99)

	평균	표준편차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3.01	0.65	
샤덴프로이데 경험 질문지	2.98	0.56	.54***
샤덴프로이데 시나리오 질문지			
1-1) A에게 샘이 난다.	3.23	1.32	.31**
1-2) A에게 기분이 나쁘다.	4.27	0.83	.19
1-3) 내가 A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3.05	1.33	.26*
1-4) A에게 생긴 일 때문에 기분이 좋다.	4.24	1.04	.17
1-5) A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	3.92	1.12	.21
2-1) A에게 생긴 일이 썸통이라고 생각한다.	4.17	0.81	.28**
2-2) A에게 생긴 일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3.17	1.16	.57***
2-3) A에게 생긴 일이 만족스럽다.	3.47	1.00	.43***
2-4) A에게 생긴 일이 안타깝다.	3.84	1.04	-.21
2-5) A에게 생긴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2.37	1.10	.66***

주. * $p < .05$, ** $p < .01$, *** $p < .001$,

시나리오 질문지 1부분은 친구 A가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하여 유명해진 상황이고, 2부분은 A가 결국 문제를 일으켜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잊혀진 상황이었음.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R. H. Smith et al., 2009; R. H. Smith et al., 1996). 그러나 비교적 약한 상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두 정서 사이에 차별점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Feather & Sherman, 2002; Feather & Nairn, 2005; Takahashi et al., 2009). 또한, 1-4)공감적 행복 및 2-4)연민과 샤넨프로이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샤넨프로이데가 연민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기존의 연구들(Feather & Sherman, 2002; Feather & Nairn, 2005)과는 다른 결과이다. 연구 1의 결과는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는바, 추후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그 양상을 다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STS는 열등감 혹은 낮은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는 문항인 '1-3) 내가 A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와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샤넨프로이데가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등한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된 사람들보다 사회비교 상황에서 더 큰 폭의 자존감 변화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나(Morse & Gergen, 1970),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큰 샤넨프로이데 감정을 느낀다는 결과와 일관된다(van Dijk et al., 2011). 그러나 두 번째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항과 상관을 분석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샤넨프로이데와 자존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STS는 샤넨프로이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 구체적인 상황들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STS는 시기심을 측정하는 문항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STS의 타당도를 저해한다고 보다는 샤넨프로이데와 시기심의 일부 유사성이 밝혀진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1의 분석 결과, STS가 성인을 대상으로도 샤넨프로이데를 타당하게 측정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공감적 행복이나 연민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어 추후 재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2.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

연구 2의 목표는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집된 참여자를 무선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 샤넨프로이데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경험될 수 있는 차별적 정서들인 공감적 행복 및 연민과는 상관이 없었고, 시기심과는 약한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만, 이 결과가 하나의 문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타당화된 척도들을 사용하여 다시 변별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시기심을 측정하는 데 기질적 시기심 척도를, 공감적 행복과 연민을 측정하는 데 공감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와 자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추가로 샤넨프로이데가 사회적 비교 맥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도덕 및 윤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그 표현을 제한하고자 하는 특성도 내재되어 있는 바(Cecconi et al., 2020; Hoffmann et al., 2017; Powell & Smith, 2013), 사회적 바람직성 변인이 샤펜프로이데 경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샤펜프로이데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정도도 추가로 측정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참여자는 리서치 업체를 통해 모집한 330명으로 연구 모집 문건을 본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받았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가 165명(50%), 여자도 165명(50%)으로 동일했으며, 연령 범위는 만 20~77세였고($M = 44.62$, $SD = 13.97$), 남녀 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

측정도구

샤펜프로이데 및 관련 정서

샤펜프로이데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1에서 사용한 샤펜프로이데 경향성 척도(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TS)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샤펜프로이데와 차별된 정서로 제시된 3가지 중 첫 번째인 시기심을 측정하기 위해 기질적 시기심 척도(Dispositional

Envy Scale, DES)를 사용하였다. 이는 R. H. Smith, Parrott, Diener, Hoyle 및 Kim(1999)이 시기심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8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Cha(2009)가 번역하였다. Cha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공감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avis(1983)가 다차원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8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를 Kang 등(2009)이 한국어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IRI의 하위 차원에는 조망수용,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및 개인적 고통의 4가지 요인이 있다. 조망수용은 인지적으로 타인의 심리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고, 상상하기는 책이나 영화 등의 인물이 느끼는 정서를 동일시해보는 것이며,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동정심을 갖는 것이며,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느끼는 고통이나 공포에 대해서 개인이 겪는 정서적 압도감이나 불안, 공포를 나타낸다(Davis, 1983). 기존 IRI의 연구에서 하위 요인 중 상상하기 및 개인적 고통이 조망수용 및 공감적 관심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혹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결과들이 발견되어(Delić et al., 2011; H. Kim & Han, 2018; Riggio & Taylor, 2000; Lauterbach & Hossler, 2007),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행복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조망수용과 공감적 관심 요인만을 포함하였다.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0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73이었으며, 조망수용은 .60, 공감적 관심은 .64였다. 더불어 공감만으로는 공감적 행복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요인이 포함된 자비 척도

(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LCS)를 함께 측정하였다. 자비 척도에는 행복과 더불어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세 번째 정서인 연민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LCS는 Cho 등(2018)이 해외에서 제작된 자기자비 척도나 자비적 사랑 척도의 개념적 한계를 보완하고 불교적 자비 개념을 반영하여 개발한 1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사랑, 연민, 자기중심성(역문항)의 3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별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 요인은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누구를 만나든 마음이 흐뭇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접촉하고 도와주려는 의미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일어난다’라는 문항이 포함된다. 자기중심성은 타인과의 상호연결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모른 채 한다’라는 문항이 포함된다. 앞서 서술한 대로 척도의 요인구조 및 문항의 구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랑’ 요인을 공감적 행복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연민’ 요인을 연민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Cho 등(2018)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사랑 .75, 연민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랑 .65, 연민은 .74였다.

우울, 삶의 만족 및 사회적 바람직성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과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으로 우울, 삶의 만족 및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을 측정하였다. 이 중 우울을 측정하기 위

해 한국판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Korean vers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선택하였다. 이는 Spitzer 등(1999)이 일차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진단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9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DSM-IV)의 주요우울장애 증상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우울증 선별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국내에서 Choi 등(2007)이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 Larsen과 Griffin이 1985년에 개발한 5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인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Zoh와 Cha(1998)가 타당화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판단을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은 Paulhus(1988)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를 한국 대학생으로 수정하고 타당화 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Self-Deceptive Positive Scale, BIDR-SDPS)(Chung, 2005)를 사용하였다. 이는 20문항의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자기기만적 고양을 나타내는 요인 10문항과 인상관리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ung(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6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전체 .77로 나타났다.

분석

IBM SPSS Statistics 24 및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치와 척도 간 상관 분석 및 집단 비교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샤덴프로이데 경향성과 변별되는 개념인 공감적 행복과 연민을 측정하기 위해 IRI와 LCS에서 개념적으로 적합한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이에 공감적 행복의 측정 값으로는 IRI 척도의 하위요인 중 조망수용과 공감적 관심 값과 LCS의 사랑 요인 값을 사용하였으며, 연민으로는 LCS의 연민 요인의 값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STS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STS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2). 성별과 연령 외에 샤덴프로이데가 유발되는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형제 수와 출생 순서, 직업 상태,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을 함께 측정하였다. 이 중 출생 순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집단의 STS 평균은 2.91, 표준편차는 .92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샤덴프로이데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인은 형제자매의 수였다. 형제자매의 수는 연령과 .62의 상관을 보여 연령을 공변량으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F(2, 326) = 4.17, p = .016$, 부분 $\eta^2 = .25$. 추가로 다른 변인들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시기심과 연민 및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공감에서 형제 1~2명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F(2, 326) = 3.72, p = .025$, 부분 $\eta^2 = .22$. 즉, 형제자매의 수가 1~2명인 집단은 사회적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샤덴프로이데를 많이 경험하고, 공감을 적게 하였는데, 이는 소수와 가장 밀접하게 경쟁 및 비교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연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간 STS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제일 높은 60대 이상의 집단, 중졸 이하의 학력 집단, 프리랜서 및 전업 주부 집단 등은 해당 기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샤덴프로이데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학력 수준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의 집단의 경우 표본 수가 4로 매우 적어 해석에는 제한이 있다. 한편, 직업군에서 무직 및 기타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샤덴프로이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Wang 등(2019)이 언급한 샤덴프로이데의 하위 유형 중 사회적 위치를 서로 비교하는 ‘경쟁’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기심이 높고 삶의 만족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우울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마도 지속적인 구직활동 속에서 타인과 경쟁하고 사회적 위치를 비교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더 민감한 상태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직업 상태에 따라 샤덴프로이데 경향성과 기질적 시기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결과는 두 척도가 비교적 일관된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샤덴프로이데와 시기심을 측정하고자 했으나, 결과 해석에 있어 개인이 처한 상

표 2.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별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330)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65	50.0	3.00	0.90
	여	165	50.0	2.82	0.93
연령	20대 이하	64	19.4	2.96	0.94
	30대	64	19.4	3.01	0.95
	40대	67	20.3	2.99	0.86
	50대	68	20.6	2.86	0.93
	60대 이상	67	20.3	2.74	0.9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2	2.78	1.38
	고등학교 졸업	65	19.7	2.88	1.00
	대학교 졸업	226	68.5	2.93	0.89
	대학원 이상	35	10.6	2.87	9.26
형제자매 수	없음	17	5.2	2.62	9.09
	1명 ~ 2명	211	63.9	3.04	8.72
	3명 이상	102	30.9	2.69	9.62
직업	직장인	166	50.3	2.91	9.40
	자영업	26	7.9	2.89	8.07
	프리랜서	27	8.2	2.63	9.77
	전업주부	40	12.1	2.79	9.93
	무직	35	10.6	3.20	7.74
	학생	21	6.4	2.89	9.10
	기타	15	4.5	3.16	7.14
연평균 가구소득	2천만원 미만	36	10.9	3.07	8.02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89	27.0	2.85	9.54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85	25.8	2.92	9.78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84	25.5	2.91	9.04
	9천만원 이상	36	10.9	2.88	8.30

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편, 연구 1의 공감적 행복 문항에서 성차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 2에서도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 1과는 반대로 공감, 사랑 및 연민에서 여성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328) = 2.03, p < .05$, Cohen's $d = 0.26$, $t(328) = 2.26, p < .05$, Cohen's $d = 0.25$, $t(328) = 2.68, p < .01$, Cohen's $d = 0.30$.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의 공감 및 사랑과 연민 점수가 높

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Kang et al., 2009; Baez et al., 2017). 그러나 연구 1에서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1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과 연구 1에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이 한 문항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감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t(328) = 2.40, p < .05$, Cohen's $d = 0.26$.

탐색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자를 무선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중 171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및 회전 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사각회전방식(direct oblimin)을 적용하였다. 고유치(eigenvalues)가 1.0 이상인 요인 및 스크리 검정(scree test)를 통해 1개 요인이 선택되었다. 분석 결과 KMO (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2로 상당히 높았고, 단일요인 모형의 총 설명량은 60.60%였다(Chi-square =158.33, $p < .001$).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결과 단일모형이 도출된 것과 일관된다(Lee, 2014).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참여자를 무선으로 나누는 두 번째 집단의 159명을 대상으로 ST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사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171)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공통분
1.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좋다.	2.60	1.13	.76	.58
2.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3.33	1.25	.77	.60
3.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2.61	1.09	.65	.42
4. 다른 이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2.80	1.12	.69	.48
5.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이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괜스레 안도가 된다.	2.48	1.02	.72	.53
6.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3.20	1.14	.82	.66
7. 평소 부러워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남모를 쾌감을 느낀다.	2.56	1.04	.76	.58
8. 평소 싫어하던 사람이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괜스레 안도가 된다.	3.05	1.14	.83	.68
9.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소하다고 느낄 것이다.	3.45	1.24	.73	.54
10.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웃음이 날 것이다.	2.84	1.12	.75	.56

표 4.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159)

모형	χ^2	df	CMIN/df	NFI	TLI	CFI	RMSEA
초기모형	243.12	35	6.95	.82	.79	.84	.19
수정모형	99.00	31	3.19	.93	.92	.95	.12

먼저 CMIN/df가 3이하일 때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11), 분석 결과 그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NFI, TLI 및 CFI의 경우 .90 이상, RMSEA는 .08 미만일 때 적합도가 수용할만하며 .10보다 큰 경우 이 모형의 채택여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Browne & Cudeck, 1993). 이에 따르면 해당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사용하여 측정 오차 간 상관을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에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CMIN/df

와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NFI, TLI 및 CFI가 .9이상으로 나타나 지수가 개선되어 수정된 단일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변별타당도 분석

마지막으로 STS로 측정한 샤덴프로이데가 유사한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감정들(그림 1)과 서로 변별되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전 분석에서 연령이 샤덴프로이데, 공감적 행복 및 연민 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상관과 두 변인을 통제한 부분상관의 두 가지 값

표 5. 단순 및 부분 상관 분석결과 (N = 330)

	1. 샤덴프로이데	2. 시기심	3. 공감	4. 사랑	5. 연민	6. 우울	7. 삶의 만족
1	1						
2	.50***/.44***	1					
3	-.28***/-.20***	-.20***/-.10	1				
4	-.43***/-.31***	-.48***/-.34***	.54***/.48***	1			
5	-.35***/-.25***	-.15**/-.01	.62***/.58***	.58***/.46***	1		
6	.30***/.23***	.45***/.39***	-.22***/-.17**	-.41***/-.34***	-.20***/-.12	1	
7	-.20***/-.08	-.32***/-.16**	.24***/.16**	.59***/.49***	.23***/.11	-.28***/-.20***	1
8	-.33***/-	-.43***/-	.28***/-	.55***/-	.43***/-	-.26***/-	.40***/-

주1. ** p < .01, *** p < .001.

주2. 상관 표기: 단순상관/연령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

주3. 8-사회적 바람직성

을 산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STS로 측정된 샤넨프로이데는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감정들인 시기심과 중간 정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공감 및 사랑과 연민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Feather & Sherman, 2002; Feather & Nairn, 2005; R. H. Smith et al., 2009; R. H. Smith et al., 1996), 샤넨프로이데는 상대방의 행운에 대한 불쾌감인 시기심과 다른 정서이나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상대방의 불행에 대한 연민이나 상대방의 행운에 대한 기쁨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대되는 감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샤넨프로이데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탐색

한편, 샤넨프로이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분상관 산출결과 샤넨프로이데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5). 대인관계 맥락에서 경험되는 샤넨프로이데 중 일부는 라이벌의 불운 등과 같이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사회비교를 할 경우 그 방향과 상관없이 개인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J. B.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와 일치한다. 그러나 샤넨프로이데가 최근 2주일 간의 우울한 기분과는 상관이 있으나, 장기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 기반한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샤넨프로이데가 심리적 특성의 기간이나 요소 별로 차

별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종합논의

샤넨프로이데란 상대방이 겪는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사회비교를 포함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한다. 최근 COVID-19 등으로 더욱 늘어나는 인터넷 접속, 소셜미디어의 사용 등 사회비교의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어, 샤넨프로이데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서가 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서 샤넨프로이데는 주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상황 특정적이고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어 전반적인 샤넨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는 경제적인 도구가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샤넨프로이데에 대한 연구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샤넨프로이데 경향성 척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타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 1에서는 STS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샤넨프로이데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CVI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Polit 등(2007)의 기준에 의해 STS가 샤넨프로이데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들이 샤넨프로이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수집한 후 간단한 문항 및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STS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Cecconi 등(2020)과 Wang 등(2019)에 따르면 샤넨프로이데 경험은 상황과 발달 및 동기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그들이 제안한

하위 유형이 포함되도록 경험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STS는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샤덴프로이데와 높은 상관을 보여, 성인의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한편 타인의 불행과 행운에 대한 개인의 유쾌한 혹은 불쾌한 정서적 반응은 샤덴프로이데를 포함하여 시기심, 공감적 행복 및 연민의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Coppens, 2008), 연구 1에서 STS로 측정한 샤덴프로이데는 한 문항으로 측정한 시기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공감적 행복이나 연민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샤덴프로이데가 시기심과 다르지만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되나, 공감이나 연민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아(Feather & Sherman, 2002; R. H. Smith et al., 2009; R. H. Smith et al., 1996; Takahashi et al., 2009), 재탐색이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 2에서는 기존 척도들을 사용하여 STS의 변별타당도를 분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TS는 시기심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공감과 자비척도의 사랑으로 측정한 공감적 행복요소 및 연민과는 유의하지만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STS로 측정한 샤덴프로이데가 유사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접 정서와는 적절히 구분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와는 일치하나 연구 1과는 다른 결과인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 1에서 기존 연구 및 연구 2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각 요소들을 하나의 문항으로만 측정한 것과 관련된 한계 및 표본의 특성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전체적인 샤덴프로이데 경향성을 측정하는 STS는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Cecconi et al., 2020; Wang et al., 2019)에서 샤덴프로이데가 다양한 상황 및 동기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된바, 추후 샤덴프로이데 경향성도 단일요인이 아닌 다수의 요인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샤덴프로이데의 경험을 개인 수준뿐 아니라 집단 상황으로 확장하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연민과의 상관에서 한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제기된다. 즉, 개인 수준에서 샤덴프로이데 경험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인 공감 및 연민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집단수준으로 확장하면 타인이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연구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당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 정당의 정치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뉴스나 우스운 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 단순한 실수를 보고 더 유쾌해 할 뿐만 아니라, 군인 사망과 경기 침체 소식과 같이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일 때 조차도 그것이 상대 정당 정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의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결과가 제시되었다(Combs, Powell, Schurtz, & Smith, 2009). 더불어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 팀에 대한 일체감이 높을수록 상대 팀에 대해 샤덴프로이데를 더 많이 느끼고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Nakano, 2018/2018; R. H. Smith, 2013/2015). 즉, 내집단(ingroup) 구성원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소속감이 높을수록 외집단(outgroup)에 대한 샤덴프로

이데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이나 사랑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옥시토신이 상반된 감정으로 보이는 높은 시기심 및 샤덴프로이데와도 함께 관련되며 (Shamay-Tsoory et al., 2009), 옥시토신을 처치받은 집단이 위약집단에 비해 외집단과의 사회 비교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결과(E. Kim et al., 2021)를 보면 샤덴프로이데와 공감 혹은 연민의 관계 및 이와 관련된 합리적 혹은 도덕적 행위나 판단 등을 개인차원과 집단차원으로 구분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 분열과 집단 간 대립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집단 차원에서 작용하는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샤덴프로이데는 최근 2주간의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샤덴프로이데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기간이나 요소 별로 차별적인 상관을 보일 수 있어, 샤덴프로이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정서 및 동기 와 그 결과 등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누구나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샤덴프로이데라는 정서를 적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샤덴프로이데 경험은 자신의 삶의 만족과는 상관이 없지만, 높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적 특성이나 마키아벨리즘, 반사회적 행동 및 인터넷 상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관련되며(Demeter et al., 2021; James et al., 2014), 사람들은 도덕적 측면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부

정적 영향으로 인해 샤덴프로이데의 표현을 제한하려한다(Cecconi et al., 2020; Hoffmann et al., 2017; Powell & Smith, 2013)는 점에서 추후 적용적 및 임상적 측면에서 샤덴프로이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더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샤덴프로이데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실용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STS를 타당화 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대체로 청소년기에 국한되었던 샤덴프로이데의 경험적 연구를 성인기까지 확장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샤덴프로이데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서평정을 통해 샤덴프로이데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경우 도구의 상황특정적 성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응에서 상황에 따른 개인차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편적 항목들로 구성된 리커트 방식의 척도를 적용하는 것은 샤덴프로이데의 경향성을 측정할 때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이후 활발한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샤덴프로이데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확인한 점이다. 그동안 연구는 기본정서 및 그를 기반으로 파생된 정서들을 주로 단순한 반응 차원에서 이해하여 왔으며, 그 이면에 있는 개인의 해석 혹은 기대는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샤덴프로이데와 같이 대상의 부정적 상태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반응과 같은 측면은 많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

던 샤넨프로이데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차원의 정서로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의의는 본 연구를 통해 샤넨프로이데가 대인간 및 집단간 갈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의 중요한 정서적 요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집단간 대립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최근 또래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경우도 샤넨프로이데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에서는 희생양이 되는 대상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다수의 익명 혹은 기명의 인물들이 괴롭힘을 지속하는데, 이것이 복수심이나 분노와 같은 일차원적 형태의 정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미래 정서를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얻기를 기대한 결과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탈 현상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으며, 전연령대 사람들이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물론 직장을 포함한 다양한 대인관계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의 사회적 의미를 정교한 차원에서 상기시키며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및 부족한 점으로는 우선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더 많은 요인들을 측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샤넨프로이데가 사회비교의 상황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인 점을 고려하면, 추후 사회비교 경향성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 등 관련된 개념을 더 추가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행복을 측정하는 적절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

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타인의 행복과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공감적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미비하여 연구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지 못하였는데, 추후에는 정확한 공감적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연구 1에서 샤넨프로이데가 열등감이나 자존감 등과 관련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는데, 연구 2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STS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샤넨프로이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ez, S., Flichtentrei, D., Prats, M., Mastandueno, R., García, A. M., Cetkovich, M., & Ibáñez, A. (2017). Men, women. . .who cares? A populationbased study on sex differences and gender roles in empathy and moral cognition. *Plos one*, 12(6), p.e017933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79336>
- Boecker, L., Likowski, K. U., Pauli, P., & Weyers, P. (2015). The face of schadenfreude: Differentiation of joy and schadenfreude by Electromyography. *Cognitive Emotion*, 29(6), 1117-1125. <https://doi.org/10.1080/02699931.2014.966063>.
- Brigham, N. L., Kelso, K. A., Jackson, M. A., & Smith, R. H. (1997). The roles of invidious comparisons and deservingness in sympathy and schadenfreude. *Basic and Applied Social*

- Psychology*, 19(3), 363-380.
https://doi.org/10.1207/s15324834basp1903_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62), Newbury Park, CA: Sage.
- Cecconi, C., Poggi, I., & D'Errico, F. (2020). Schadenfreude: Malicious joy in social media interac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1:558282.
<https://doi.org/10.3389/fpsyg.2020.558282>.
- Cha, O. (2009). Buroum: An analysis of benign env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2), 171-189.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2.010>.
- Cho, H., Noh, S., Park, S., Ryu, S., Misan, V., & Lee, J. S.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141-144.
<https://doi.org/10.1016/j.paid.2017.12.019>.
- Choi, H. S., Choi, J. H., Park, K. H., Joo, K. J., Ga, H., Ko, H. J., & Kim, S. R. (200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8, 114-119.
<https://www.kjfm.or.kr/journal/view.php?number=357>.
- Chung, B-R. (2005). *A study on construct exploration of social desir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ombs, D. J. Y., Powell, C. A. J., Schurtz, D. R., & Smith, R. H. (2009). Politics, schadenfreude, and ingroup identification: The sometimes happy thing about a poor economy and deat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635-646.
<https://doi.org/10.1016/j.jesp.2009.02.009>.
- Coppens, F. (2008). *Emotions elicited by the (mis)fortunes of others: Spotlighting schadenfre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ilburg University, Tilburg.
- Dalakas, V. & Melancon, J. P. (2012). Fan identification, schadenfreude toward hated rival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importance of winning index(IWIN).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6(1), 51-59.
<https://doi.org/10.1108/08876041211199724>.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Delič, L., Novak, P., Kovačič, J., & Avsec, A. (2011). Self reported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and empathy as distinctive predictor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Topics*, 20, 477-488. <https://hrcak.srce.hr/78734>.
- Demeter, E., Rad, D., & Balaş, E. (2021). Schadenfreude and general anti-social behaviours: The role of violent content preferences and life satisfaction. *Broad Research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12(2), 98-111.
<https://doi.org/10.18662/brain/12.2/19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Feather, N. T. (1989). Attitudes towards the high achiever: The fall of the tall popp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1(3), 239-267.
<https://doi.org/10.1080/00049538908260088>.
- Feather, N. T. (1991). Attitudes towards the high achiever: Effects of perceiver's own level of competenc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3), 121-124.
<https://doi.org/10.1080/00049539108260134>.
- Feather, N. T. & Nairn, K. (2005). Resentment, envy, schadenfreude, and sympathy: Effects of own and other's deserved or undeserved statu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7(2), 87-102.
<https://doi.org/10.1080/00049530500048672>.
- Feather, N. T. & Sherman, R. (2002). Envy, resentment, schadenfreude, and sympathy: Reactions to deserved and undeserved achievement and subsequent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7), 953-961.
<https://doi.org/10.1177/014616720202800708>.
- Greenier, K. D.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chadenfreude in hypothetical versus l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121(3), 445-458.
<https://doi.org/10.1177/0033294117745562>.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Hofmann, J., Platt, T., & Ruch, W. (2017). Laughter and smiling in 16 positive emotions. *Transactions on Affective Computing*, 8, 495-507.
<https://doi.org/10.1109/TAFFC.2017.2737000>.
- James, S., Kavanagh, P. S., Jonason, P. K., Chonody, J. M., & Scrutton, H. E. (2014). The Dark Triad, schadenfreude, and sensational interests: Dark personalities, dark emotions, and dark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8, 211-216.
<https://doi.org/10.1016/j.paid.2014.04.020>.
- Kang, I., Kee, S., Kim, S-E., Jeong, B., Hwang, J-H., Song, J-E., & Kim, J-W.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8, 352-358.
<https://kmbase.medic.or.kr/Main.aspx?d=KMBASE&i=0368820090480050352&m=VIEW>.
- Kim, E. Y., Sul, S., Lee, M. W., Lim, K.-O., Shin, N. Y., Kim, S. N., Kwon, J. S., & Kim, H. (2021). Effects of oxytocin on social comparisons in intergroup situations. *Brain Sciences*, 11(9), 1227.
<https://doi.org/10.3390/brainsci11091227>.
- Kim, H. & Han, S. (2018). Does personal distress enhance empathic interaction or block i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77- 83,
<https://doi.org/10.1016/j.paid.2017.12.005>.
- Kline,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d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uterbach, O., & Hosser, D. (2007). Assessing empathy in prisoners: A shortened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6(2), 91-101.
<https://doi.org/10.1024/1421-0185.66.2.91>.
- Leach, C. W., Spears, R., Branscombe, N., & Doosje, B. (2003). Malicious pleasure: Schadenfreude at the suffering of anoth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932-943.
<https://doi.org/10.1037/0022-3514.84.5.932>.

- Lee, N. (2014). "Shameful Joy": A study on the Schadenfreude among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https://doi.org/10.1097/00006199-198611000-00017>.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48-156.
<https://doi.org/10.1037/h0029862>.
- Nakano, N. (2018). シャーデンフロイデ 他人を引きずり下ろす快感 [Schadenfreude] (Noh, K., Trans.). Seoul: Samho Media.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 Oh, J., & Kim, Y. (2020). The effects of sport team rivalry and schadenfreude on the intent to watch a rival team's game.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5(2), 31-44.
<https://doi.org/10.31308/KSSM.25.2.3>.
- Parrott, W. G., & Smith, R. H. (1993). Distinguishing the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06 - 920.
<https://doi.org/10.1037/0022-3514.64.6.906>.
- Plato (2020). *Philebus* (Lee, K., Trans.). Paju: Acanet. (Original work published B.C. 4C).
- Polit, D. F., Beck C. T., & Owen, S. V. (2007). Is the CVI an acceptable indicator of content validity? Appraisal and recommendation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4), 459-467.
<https://doi.org/10.1002/nur.20199>.
- Powell, C. A. J., & Smith, R. H. (2013). Schadenfreude caused by the exposure of hypocrisy in others Self and Identity. *Self Identity* 12, 413-431.
<https://doi.org/10.1080/15298868.2012.687013>.
- Riggio, R. E., & Taylor, S. J. (2000). Persona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as predictors of hospice nurs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5, 351-359.
<https://doi.org/10.1023/A:1007832320795>.
- Shamay-Tsoory, S. G., Fischer, M., Dvash, J., Harari, H., Perach-Bloom, N., & Levkovitz, Y. (2009). Intranasal administration of oxytocin increase envy and schadenfreude (gloating). *Biology Psychiatry*, 66(9), 864-870.
<https://doi.org/10.1016/j.biopsych.2009.06.009>.
- Smith, R. H. (2015). *Joy of Pain: Schadenfreude and the Dark Side of Human Nature* (Lee, Y., Trans.). Seoul: Hyeonam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Smith, R., H., Parrott, W. G., Diener, E. F., Hoyle, R. H., & Kim, S. H. (1999). Dispositional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8), 1007-1020.
<https://doi.org/10.1177/01461672992511008>.
- Smith, R., H., Powell, C. A. J., Combs, D. J. Y., & Schurtz, D. R. (2009). Exploring the when and why of schadenfreud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4), 530-546.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9.00181.x>.
- Smith, R., H., Turner, T. J., Garonzik, R., Leach, C. W., Urch-Druskat, V., & Weston, C. M. (1996). Envy and schadenfreu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2), 158-168.
<https://doi.org/10.1177/0146167296222005>.

- Smith, T. W. (2020). *Schadenfreude: The Joy of Another's Misfortune* (Lee, Y., Trans.). Gyeonggi-do: Dasan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 Spitzer, R. L., Kroenke, K., & Williams, J. B.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JAMA*, 282(18), 1737-44. <https://doi.org/10.1001/jama.282.18.1737>.
- Takahashi, H., Kato, M., Matsuura, M., Mobbs, D., Suhara, T., & Okubo, Y. (2009). When your gain is my pain and your pain is my gain: neural correlates of envy and schadenfreude. *Science* 323, 937-939. <https://doi.org/10.1126/science.1165604>.
- van Dijk, W. W., & Ouwerkerk, J. W. (Eds.) (2014). *Schadenfreude: Understanding pleasure at the misfortune of ot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W. W., Ouwerkerk, J. W., Goslinga, S., & Nieweg, M. (2005). Deservingness and schadenfreude. *Cognition and Emotion*, 19(6), 933-939. <https://doi.org/10.1080/02699930541000066>.
- van Dijk, W. W., van Koningsbruggen, G. M., Ouwerkerk, J. W., & Wesseling, Y. M. (2011). Self-esteem, self-affirmation, and schadenfreude. *Emotion*, 11(6), 1445-1449. <https://doi.org/10.1037/a0026331>
- Vogel, E. A., Rose, J. P., Roberts, L. R., & Eckles, K. (2014). Social comparison, social media,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3(4), 206-222. <https://doi.org/10.1037/ppm0000047>.
- Wang, S., Lilienfeld, S. O. & Rochat, P. (2019). Schadenfreude de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A tripartite motivational model. *New Ideas in Psychology*, 52, 1-11. <https://doi.org/10.1016/j.newideapsych.2018.09.002>.
- Wang, X. (2017).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type and life satisfaction in SNS-Focusion Insta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White, J. B., Langer, E. J., Yariv, L., & Welch, J. C.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s: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1), 36-44. <https://doi.org/10.1007/s10804-006-9005-0>.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326>.
- Zoh, M-H., & Cha, K-H. (1998). *A cross-national analysis of quality of life*. Seoul: Jipmoondang.

1차원고접수 : 2021. 10. 18.
 2차원고접수 : 2022. 04. 20.
 3차원고접수 : 2022. 07. 04.
 최종게재결정 : 2022. 07. 10.

Validation of the Schadenfreude Tendency Scale among Korean adults

Doyoun An

Department of Psychology,
Hanshin University

Myung Hyun Cho

BK21 FOUR R&E Center for Psychology,
Korea University

Schadenfreude is the pleasure of other's misfortunes. This article describes the validation of the Schadenfreude Tendency Scale(STS) among Korean adults,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dolescents. In Study 1, 1) twelve psychologis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each item of the STS, 2) the STS, questions and scenario containing various Schadenfreude situations(aversion, injustice, identification, compensation, aggression, rivalry, justice) administered to 99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TS consists of questions that can measure the Schadenfreude for adults. In study 2, 330 people participated to investigate the STS's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TS and related scales(envy, empathic happiness, sympathy,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life). Results from study 2 indicate that the STS has a single-factor structure and good internal consistency. When controlling for ag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chadenfreude based on number of siblings. The unemployed's Schadenfreude score tended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occupational statuses. When controlling for age and social desirability, the S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ther measures of envy, empathic happiness, and sympathy confirming the scale's discriminant construct validity. Schadenfreud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igher level of depress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In the discussion sec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chadenfreude, Schadenfreude Tendency Scale, social comparison, envy, empathy